

어조사(語助辭)

한문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이 다른 한자를 보조하여 우리말의 조사, 어미, 의존 명사 같은 역할을 하는 한자를 어조사(語助辭)라고 한다. 대표적인 어조사로는 於, 也, 而 등이 있다. 어조사에 대하여 처음부터 옥편이나 허사(허자) 사전에 있는 많은 어조사의 의미나 기능을 살살이 자세히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니 우선은 주요한 어조사의 주된 의미나 기능을 대충 안 뒤에, 문장을 통해서 단어를 익히는 것이 효율적이듯이, 어조사도 문장 공부를 하면서 차츰 배워 가면 된다. 그리고 어조사는 말 그대로 보조하는 것이니, 문장을 해석할 때에 어조사 위주로 해석하기보다는, 먼저 어조사가 보조하는 실사(實辭)나 관련된 문맥을 바탕으로 하고, 그 뒤에 어조사를 보조적으로 참고하여 문장을 해석함이 좋을 것이다. 참고로 아래에서 설명하는 어조사는 於, 自, 以, 與, 由, 所, 者, 之, 爲, 也, 矣, 乎, 哉, 焉, 而, 則 이다.

어조사의 종류

於나, 于처럼 명사 앞에 위치하여 뒤에 오는 명사(대명사, 수사, 명사구 포함)와 결합하여, 마치 영어의 전치사 비슷한 노릇을 하는 어조사가 있다. 이런 어조사는 전치사(前置詞: 영어의 전치사와 형태와 기능이 비슷하므로 여기서는 임의대로 편의상 전치사라고 한다.)라고 하자. 전치사에는 於, 于, 乎, 以, 與, 自, 從, 由, 道 등이 있다. 또 어조사 중에서 국어의 의존명사 ‘것’처럼 대개 동사를 명사로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 이런 어조사는 所, 攸, 者 등이다. 그 외 어조사는 대개 문장이나 단어 뒤에 쓰이거나, 문장 중간에 쓰이는 것들이다. 문장, 단어, 구절 뒤에 쓰이는 어조사는 也, 矣, 哉, 乎, 兮, 耳, 焉, 之, 止, 邪, 耶, 與, 歟, 夫 등이다. 문장이나 구절 중간에 쓰이는 어조사로는 而, 則, 乃 등이 있는데, 일부는 어조사로 볼 것인지 애매한 것도 있다. 乎, 與 같은 어조사는 단어 앞에서 전치사로 쓰이기도 하고 단어 뒤에 쓰이기도 한다. 또 적지 않은 어조사가 실사(實辭)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다. 이점이 때로 어조사의 해석에 혼란을 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여기서는 주요 어조사의 허사(虛辭)적으로 쓰이는 주된 의미나 기능을 위주로 간단히 정리했다. 어조사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것은 옥편이나 한한(漢韓)대사전, 허자(虛字)사전 등을 보기 바란다.

· 於

於是 의미나 기능이 대단히 광범위하여, 이것을 몇 개로 정리하기도 힘들다. 그러나 다행히도 於是 대개 우리말로 ‘-에, -에게, -에서’ 등으로 해석된다. 于, 乎는 於와 그 쓰임이 비슷하나, 乎는 단어나 문장 뒤에 쓰이기도 한다.

○ 「-에, -에서, -로」 (장소. 공간. 방향)

去鄉, 往於京.(시골을 떠나, 서울로 갔다.)

晝耕於野, 夜讀於家.(낮에는 들에서 농사짓고, 밤에는 집에서 책을 본다.)

○ 「-에게, -에, -한테」 (상대)

孔子問禮於老子矣.(공자가 노자에게 예를 물었다.)

王賜米百石於姜將軍也.(왕이 쌀 백석을 강 장군에게 하사했다.)

○ 「-에, -에게(한테)」 (피동)

日本敗於韓國矣.(일본은 한국에게 패했다.)

多兵見禽於敵.(많은 병사가 적에게 사로잡혔다.)

○ 「-에, -를, -에 대하여」 (대상. 목표)

務於本, 不務於末.(근본에 힘쓰고 말단에 힘쓰지 마라)

醫攻於病.(의원은 병을 다스린다)

能於雜技, 不能於理財.(잡기에는 능하나, 이재에는 무능하다)

○ 「-에는, -에게는」 (입장. 관점)

白頭山於我國, 若母也.(백두산은 우리나라에는 어머니와 같다)

良藥苦於口.(좋은 약은 입에 쓰다)

○ 「-에서는, -은」 (부분. 성분)

王妃薄於色, 厚於德.(왕비는 생김새는 박하나(못하나), 덕은 후하다.)

我國多於山, 少於野.(우리나라는 산은 많으나 들은 적다.)

○ 「-과(와), -보다, -에」 (비교)

我國之語異於中國.(우리나라 말은 중국과 다르다)

夏暑於春, 冬寒於秋.(여름은 봄보다 덥고, 겨울은 가을보다 춥다)

地異山之高不及於白頭山.(지리산의 높이는 백두산에 미치지 못한다)

○ 「-에서, -에」 (발단. 유래. 원인)

佛教發於印度.(불교는 인도에서 발생했다)

福生於清儉.(복은 청경함에서 생긴다)

· 自

○ 「-에서, -부터」 (시작. 출발점)

自古至今, 綿綿不絕.(예로부터 지금까지 면면히 끊이지 않다)

京釜線發自京, 到於釜山也.(경부선은 서울에서 출발하여 부산에 이른다)

妻清掃自居室也.(아내가 거실부터 청소했다)

○ 「-하고부터」 (=自 ~ 後)

自金氏得橫財, 未嘗勞矣.(김씨는 횡재를 하고부터 일한 적이 없다)

自古東溺於賭博, 失數億矣.(길동이는 도박에 빠진 이후로 수억을 잃었다)

○ 「-에서, -부터」 (발단. 원인)

禍福自我出也.(화복은 나에게서 나온다)

禍始自不知足矣.(화는 만족을 모르는 것에서 시작된다.)

○ 「자기, 스스로, 저절로」

自繩自縛.(자기 줄에 자기를 묶다)

強行不如自發.(강제로 하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보다 못 하다)

· 以

이가 이끄는 구(句)는 대개 부사어로 취급하고, 어순의 위치가 일정하지 않고 자유로워, 해석에 모호함을 가져오기도 한다.

○ 「쓰다(=用), 까닭」

○ 「로써, -를 가지고, -로써 하다」 (수단. 도구. 재료. 방법)

以卵投石.(달걀로 돌을 친다.)

築城以石.(돌로써 성을 쌓다)

石以積塔.(돌로써 탑을 쌓다)

交友以信.(미더웁으로 친구를 사귀어라)

聽不以目, 以耳也.(듣는 것은 눈으로 하지 않고 귀로 한다)

以鹽加水.(소금을 물에 타다)

○ 「-를 데리고(가지고), -와 함께」 (동반. 지참)

父歸家以友也.(아버지가 친구를 데리고 귀가했다)

○ 「-를, -로써」 (목적. 대상)

兄以黃金授弟也.(형이 황금을 동생에게 주었다)

姜太公以釣爲事矣.(강태공은 낚시로 일을 삼았다)

○ 「~ 때문에(-때문이다), -이므로, 까닭이다」 (이유. 원인)

勿以小利, 失大利哉.(작은 이익 때문에 큰 이익을 놓치지 마라)

富者爲富, 貧者爲貧, 以八字也.(부자가 부유하고 빈자가 가난한 것은 팔자 때문이다)

○ 「-해 가지고서, -해서(-하여)」 (상태. 연결)

殺身而以成仁(몸을 희생하여 인을 이루다)

滿醉以歌舞.(만취해 가지고서 노래하고 춤추다)

○ 「그것을, 그것으로써, 그래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받는 말)

甲授乙酒, 乙以授丙.(갑은 을에게 술을 줬고, 을은 그것을 병에게 줬다)

夫夢抱豚矣, 以告妻也.(남편이 돼지를 안는 꿈을 꾸고, 그것을 아내에게 ~)

兄打弟, 父以責兄也.(형이 아우를 때리니, 아버지가 그것을 가지고 형을 꾸짖었다)

○ 「-로서」 (자격. 지위. 신분)

王待吾以國士.(왕이 나를 국사로서 대접했다)

先生雖非親父, 以父事之.(선생이 친부는 아니지만, 아버지로 그를 섬겼다)

○ 「~에」 (시점)

以三月甲子日，市出虎焉。(삼월 갑자일에 저잣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 (여기사로)

· 與

○ 「주다, 참여하다」 (실사로 쓰일 때는 이외에도 뜻이 많다.)

○ 「-과(와), ~과(와) 더불어」 (전치사. 접속사)

與民同樂.(백성과 같이 즐긴다)

國語與日本異矣.(우리말은 일본과 다르다)

富與貴 是人之所欲也.(부와 귀는 이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다.)

○ 「-에 따라」

萬事與時行也.(만사는 때에 따라 행한다)

○ 「-하나, -하랴」 (의문. 반어)

父謂子曰，汝知我心與.(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내 마음을 아느냐.'고 말했다)

猫不勝犬，況勝虎與.(고양이가 개를 이기지 못하는데, 하물며 호랑이를 이기겠는가)

○ 「-하는가 보다, -한 것 같다」 (종결사로 추측, 의심에 쓰임)

· 由

○ 「말미암다(말미암아), -로써, 기인하다」 (원인. 기인)

由此觀之，必我國勝矣.(이로써 보건데, 반드시 우리나라가 이긴다)

○ 「-를 통하여(거쳐)」 (경유)

白頭大幹，發自白頭，由太白，到地異.(백두대간은 백두산에 발하여 태백산을 거쳐 지리산에 이른다.)

○ 「-부터(-에서)」 (시작. 발원)

○ 「-와 같다」 (=猶)

人心由蘆，屢變也.(사람 마음은 갈대 같아서, 잘 변한다)

· 所

○ 「-하는 바(것)」 (동사나 형용사를 명사로 전환시킴)

己所不欲，勿施於人(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不敢請，固所願(감히 청하지는 못하나 본래 원하던 바이다.)

○ 「-하는 대로(것마다)」

所觸揮劍.(닥치는 대로 칼을 휘두른다)

- 「-하는」 (동사를 관형사로 전환시킴)
王所好女, 非妃也.(왕이 좋아하는 여인은 왕비가 아니다.)
父投其所讀新聞也.(아버지가 읽던 신문을 내던졌다)
- 「-하게 되다, -함을 당하다」 (피동)
攻者必知所攻者.(공격하는 자는 꼭 공격을 받는 자(상대)에 대해 알아야 한다.)
所欺者不必愚也.(속임을 당하는 자가 반드시 어리석지는 않다.)

· 者

- 「-하는 사람(자), -하는 것(경우)」
來者不拒, 往者不追.(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쫓아가지 않는다)
魚, 大者至於數丈, 小者不過一寸.(물고기는 큰 것은 수 장(丈)에 이르고, 작은 것은 1촌이 되지 않는다.)
- 「-하면, -하는 자(것)」 (가정)
積善者, 則受福.(선을 쌓으면, 복을 받는다)
順天者存, 逆天者亡.(하늘을 따르는 자는 살아남고, 하늘을 거스르는 자는 ~)
- 「-하는 것」 (구절을 명사로 전환)
弱人制強獸者, 智也.(약한 사람이 강한 짐승을 제압하는 것은 지력 때문이다)
夫不勞而欲得者, 怠者望之也.(일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것은 게으른 자가 바라는 것이다.)
- 「-라는 것(사람)」
農者, 天下之大本也.(농사라는 것은 천하의 큰 근본이다.)
夫富貴者, 人之所欲也.(부귀란 사람이 원하는 것이다)
初伏者, 謂夏至以後三庚日.(초복이란 하지 이후에 세 번째 경일을 말한다.)
朝鮮有洪吉童者矣.(조선에 홍길동이란 사람이 있었다)
張吉山者, 朝鮮之義賊也.(장길산이란 자는 조선 시대 의적이다.)
- 「-에」 (시간 뒤에 붙여 쓰임)
昔者(옛날에) 古者(옛날에) 乃者(접대)
今者之人(지금 사람)
- 「-한가」 (문장 끝에서 의문을 나타냄에 쓰임)
- (어세(語勢)를 강하게 함에 쓰임)

· 之

- 「가다」 (동사)
孔子自魯之齊也.(공자가 노나라에서 제나라로 갔다.)
- 「그(그 사람), 그것, 그런 것, 그일, 이(이것)」

身體髮膚，受之父母.(몸과 수족, 터럭과 살갗은 (그것을) 부모에게 받았다)

敬人者，人恒敬之.(남을 공경하는 사람은 남이 항상 그를 공경한다)

- 「(막연한) 어떤 것」 (형식적인 목적어로 쓰일 때의 영어의 it의 용법과 비슷해 보이며, 딱히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

知之不如行之.(아는 것은 행함만 못하다.)

知之者不如好之者，好之者不如樂之者.((어떤 것을)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보다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보다 못하다.)

- 「-을(를), -에게」 (之자가 이렇게 쓰일 때 어순이 도치됨.)

明君賢者之用，不肖者之黜.(명군은 현자를 등용하고 불肖한 자를 물리친다.)

奸雄，若曹操者之謂.(간웅은 조조 같은 자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 「그(=其)」

爲人後者 爲之子也.(남의 후사가 된 자는 그 사람 아들이 된다.)

- 「-의, -하는, -라고 하는」 (수식. 관형격)

誰知烏之雌雄.(누가 (겉만 보고) 까마귀의 암수를 알아보겠는가.)

禹之父曰鯀，鯀之父曰帝顓頊.(우임금의 아버지는 곤이라 하고, 곤의 아버지는 임금 전욱이라 한다.)

父無喪子之憂，兄無哭弟之哀.(아비는 자식을 여의는 걱정이 없고, ~)

崔氏雖得富者之名，實不然也.(최씨가 부자라는 말을 들어도, 실제로 그렇지 않다.)

- 「~ 중에」

選兵之善射者.(병사 중에서 활을 잘 쏘는 자를 뽑다.)

五萬圓之，兄取三，弟取二焉.(오 만원 중에 형이 삼만을 갖고 아우가 이만을 가졌다.)

- 「-이(가)」 (주격 조사 비슷하게 쓰임)

富與貴，是人之所以欲也.(부귀는 이는 사람_이 원하는 것이다)

寡人之於國也，盡心焉耳矣.(과인이 나라에 마음을 다했다.)

- 「-에」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뒤에 쓰인다)

古之(옛날에)

- 「-에(=諸)」

- (연결 어조사, 종결 어조사로 쓰임)

· 爲

- 「하다, 되다, -라고 하다」

- 「~ 때문이다, 위해서」 (이유. 목적)

男兒爲知己者致命.(남아는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記之，爲不忘之也.(기록하는 것은 잊지 않게 위해서이다)

- 「-하게 되다, -당하다」 (피동)

高麗爲朝鮮所滅也.(고려는 조선에 멸망당했다.)

蛙爲蛇捕食也.(개구리는 뱀에게 잡아먹힌다)

- 「그를 위해서, 그 때문에」 (=爲之)

君暴政, 民爲怨君也.(임금이 폭정하니, 백성이 그 때문에 임금을 원망했다.)

子之履弊, 父爲買履也.(아들의 신이 헤어지니,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신을 사 주었다)

- 「-라고 하다」

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 모른다고 한다)

- 「만약」 (가정)

- 「-이다, -하다(형용사 앞에)」

- 「-하냐, -하구나」 (문장 뒤에 의문, 감탄으로 쓰임)

· 也

也자는 단어나 구절, 문장 뒤에 쓰이는 대표적인 어조사이다. 也는 쓰임이 매우 넓어서, 평서문, 감탄문, 반어문, 의문문, 명령문 등에 두루 두루 쓰인다. 이것은 마치 우리말의 종결어미 ‘-어(-아)’가 문맥에 따라 평서문, 의문, 감탄 등에 두루 쓰임과 흡사하다.

- 「-이다, -하다, -한 것이다」 (평서문)

周公, 文王之子也.(주공은 문왕의 아들이다)

虎與獅鬪, 則不知孰勝也.(호랑이가 사자와 싸우면 무엇이 이길지 알 수 없다)

邦無道, 富且貴焉, 恥也.(나라에 도가 없는데, 부유하고 귀함은 부끄러운 것이다.)

- 「-하구나, -이여」 (감탄)

天也. 青哉.(하늘이여, 푸르구나.)

- 「때문이다, -한 것이다」 (이유)

强者敗於弱者, 輕之也.(강자가 약자에게 패하는 것은 알았기 때문이다.)

- 「-한가, -하랴」 (의문. 반어)

日本富强於我國, 何也.(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부강한 것은 왜인가)

雖飢, 何以盜也.(아무리 배고프더라도 어찌 도둑질하겠는가)

- 「-함에(-할 때), -함이, -하고, -하여, -한데, -하면, -하니」 (구말(句末)이나 문중(文中)에서)

君子食也, 無求飽.(군자는 먹음에 배부름을 구하지 않는다)

朴氏爲人也, 優柔不斷.(박씨는 사람됨인 우유부단하다)

親愛子也, 厚于子思親也.(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자식이 부모를 생각함보다 더하다)

- 「-는(-이, -란)」

金氏有二子, 一也善歌, 二也善畫.(김씨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노래를 잘하고, 둘째는 그림을 잘 그렸다.)

義也者 與財不可易焉.(의란 것은 재물과 바꿀 수 없다.)

- 「또, 또한」

○ (부사 뒤에 붙이어 쓰인다)

必也(반드시)

· 矣

矣가 문장 끝에 쓰이는 경우에 也와 대개 그 쓰임이 비슷한 것 같다. 둘의 차이는 矣자는 也에 비해 조금 더 단호한 어감이 있어 단정적, 주관적, 의지적인 것 같다.

○ 「-하다(-이다), -하구나」 (평서문. 단언. 감탄)

朝聞道, 夕死可矣.(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綠矣. 山乎.(푸르구나. 산이여)

好仁而害人者, 鮮矣.(인을 좋아하고 남을 해치는 자는 드물다.)

不恐其死, 可謂勇矣.(그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으니, 용감하다 할만하다.)

○ 「뿐이다」 ((=而已矣) 한정. 단정)

○ 「-하겠다. -할 것이다」 (추측. 의지)

勤勞而節用, 則致富矣.(부지런히 일하고 절약하여 쓰면, 부를 이룰 것이다.) 日西出, 人皆驚矣.(해가 서쪽에서 뜨면, 사람들이 모두 놀랄 것이다)

甲謂乙曰“貸錢, 吾必償之矣.”(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반드시 갚겠다.’라고 했다)

○ 「-하냐, -하랴」 (의문. 반어)

○ 「-하니, -하고, -하지만(-하냐), -한데」 (문장 중간에)

王娶七年矣, 未得子也.(왕이 장가든 지 칠년이 됐는데, 아직 아들이 없었다.)

旱五月矣, 沴幾竭焉.(가뭄이 다섯 달 가니, 봇물이 거의 말랐다)

· 乎

○ 「-에, -에서」 (단어 앞에 쓰일 때는 於자와 기능이 비슷함)

○ 「-하냐, -하랴」 (의문. 반어)

甲問於乙曰“汝嘗讀淮南子乎.”(갑이 을에게 ‘너는 회남자를 읽은 적이 있냐.’라고 물었다)

人無禮, 則與禽獸有異乎.(사람이 예가 없으면, 금수와 다름이 있으리오)

○ 「-하구나, -하다」 (감탄)

美乎. 彼女.(예쁘구나. 저 여자.)

○ 「-하게」 (대개 형용사나 부사어 뒤에 접사처럼 쓰임)

食此藥, 則庶乎愈矣.(이 약을 먹으면, 거의 나을 것이다)

昨霹破巖. 若是乎其可強也.(어제 벼락이 바위를 깼다. 이렇게 그 세구나.)

· 哉

哉자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다른 어조사와 어우러져 ‘乎哉, 也哉, 矣哉’ 등으로 쓰이기도 한다.

○ 「-하구나, -하도다」 (감탄. 영탄)

嗚呼. 痛哉.(아. 통탄스럽구나)

高哉. 智異山乎.(높구나, 지리산이여.)

○ 「-하리오, -하랴」 (반어)

燕雀安知鳳凰之志哉.(제비, 참새가 어찌 봉황의 뜻을 알리오)

牛豈追馬哉.(소가 어찌 말을 (속도가) 따라가겠는가)

○ 「-한가, -하냐」 (의문)

○ 「-하라」 (명령)

卽速來哉.(즉시 빨리 오거라)

· 焉

○ 「어찌」 (대개 반어에 쓰이는 듯함)

焉敢生心.(어찌 감히 그런 마음이 생기리오)

割鷄, 焉用牛刀.(닭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리오)

○ 「그것(이것), 그에, 그보다」 (대명사)

過而能改, 善莫大焉.(허물이 있되 능히 고친다면 선이 이보다 큼이 없다)

年有二十四節氣, 端午不與焉.(한 해에 24 절기가 있는데, 단오는 그것에 들어가지 않는다)

○ (문미(文尾)에 평서문. 의문. 반어 등에 쓰임)

父與母, 奚好焉.(아빠와 엄마 중에 누구를 더 좋아하냐.)

○ 「-하니, -한데」 (구말이나 문중에 쓰임)

光州有名山焉, 卽無等山.(광주에 명산이 있으니, 바로 무등산이다)

千里馬不致千里, 是無他焉, 無能御之者也.(천리마가 천리를 가지 못 하는 것은 이는 다른 것은 없고, 그것을 부릴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 「-하게, -하다」 (의태어에 접사처럼 붙여 쓰인다)

孔子勃焉責於子路也.(공자가 발끈하며 자로를 꾸짖었다)

○ (시간 뒤에 붙이어 쓰인다)

· 而

○ 「-하고, -하면서, -하고서, -하여, -해서, -하자마자, -하다가」 (순접)

鳥飛天而魚泳水.(새는 하늘을 날고, 물고기는 물에서 헤엄친다.)

開門而入室.(문을 열고서 방에 들어가다)

無翼而人不飛也.(날개가 없어서 사람은 날지 못한다)
 無生而能言者矣.(태어나자 말할 수 있는 자는 없다)
 飲燒酒而至於三瓶也.(소주를 마시다가 세 병 째에 이르렀다)

- 「-하나, -하되, -한데, -하지만, -해도」 (역접)
 樹欲靜而風不止.(나무는 고요하려고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는다)
 人不知己而不慍.(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다)
 欲視而不聞.(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다)

- 「-하면, -해야(-한 후에), -하여, -하니」 (가정)
 飢而欲食, 寒而欲煖.(배고프면 먹고 싶고 추우면 따뜻해지고 싶다.)
 使有功而授賞, 有過而加罰.(공이 있으면 상을 주고, ~)
 樹成蔭而衆鳥息焉.(나무가 그늘을 이뤘야 새가 거기에 쉰다.)

- 「-에」 (시간과 관련 있는 한자 뒤에)
 朝而出 暮而歸(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다)
 十五而志于學, 三十而志于財.(열다섯에 배움에 뜻을 두고, 삼십에 돈에 뜻을 두었다.)
 始而(비로소), 久而(오랫동안), 今而(이제), 已而(이윽고)

- 「-히, -하게」 (형용사나 부사 뒤에 붙어 쓰인다)
 幸而李氏免禍矣.(다행히 이씨는 화를 면했다.)
 俄而轟轟降雨.(갑자기 쿵쿵 천둥이 치고 비가 내렸다.)

- 「-이 되어, -이」
 人而無禮, 胡不遄死.(사람이 되어 예가 없는데, 어찌 일찍 죽지 않는가)

- 「그것으로써」 (=以)

· 則

- 「-하면 즉, -하는 때(경우에)」 (가정. 조건)
 春來, 則開花.(봄이 오면, 꽃이 핀다.)
 人壽, 則過百歲.(사람이 오래 사는 경우엔 백세를 넘긴다)
 好山乎. 則好登山矣.(산을 좋아하는가. 그러면 등산을 좋아할 것이다)
 若知彼知己, 則百戰不殆.(만약 상대를 알고 나를 안다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을 것이다.)

- 「-하려 하면(=欲~則)」 (의도. 계획)
 死則生, 生則死.(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 「-하디(-하고)」 (강조)
 天高則高, 地廣則廣.(하늘은 높디 높고, 땅은 넓디 넓다)

- 「즉, 곧(卽), -은」 (동등. 부연)
 沙果則大邱, 梨則羅州.(사과는 곧 대구이고, 배는 나주이다.)
 詩則李白, 文則韓愈.(시는 이백이고 글(산문)은 한유이다.)

得橫財，則被橫災也.(횡재(橫財)를 얻는 것은 곧 횡재(橫災)를 입는 것이다)

我國則大韓民國間於中日也.(우리나라 즉 대한민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다.)

人，力則不及於牛，走則不及於犬，猛則不及於虎.(사람은 힘은 소에 못 미치고, 달리기는 개에 못 미치고, 용맹은 호랑이보다 못하다.)

○ 「곧 (때문이다)」 (이유. 원인)

中東諸國所以富，則多出石油也.(중동 여러 나라가 부유한 것은 곧 석유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 「-한지는, -한가는」 (불확실)

泰山高，則吾不知.(태산이 높은지는 나는 모르겠다)

誰作春香傳，則未詳.(누가 춘향전을 지었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 「-하니(-하여) (즉), -했는데」 (결과. 전환)

當時風吹，則燭消也.(당시에 바람이 불어오니, 곧 촛불이 꺼졌다)

人掘地而索金，則金不見也.(사람들이 땅을 파서 금을 찾아보니, 금은 보이지 않았다.)

○ 「법, 본받다」

기타 어조사

앞에서 다루지 않은 어조사, 허사(虛辭)나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한자들 중에서 서로 유사한 의미나 기능한 가진 것들을 하나로 묶어 간단히 의미만 심는다. 아무 설명이 없는 단어나 어구는 앞의 단어의 의미와 비슷하거나 관련이 있다는 암시이다. 허사는 대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실사(명사, 동사, 형용사)를 제외한 한자를 의미한다. 주의할 점은 많은 한자가 허사와 실사(實辭)를 겸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다룬 어조사와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옥편이나 원전(原典) 등에 의거하는 것인데, 이 의거 자체에 오류가 있거나, 내가 의거 내용을 잘못 파악하여, 이로 인하여 설명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음을 고지한다.

감탄사, 차사(嗟詞)

噫(아. 아아. 오). 嘻. 嘻. 烏(아아). 嗚(오). 嗟(아). 惡(아). 於(아). 啞. 呼. 咄. 唉. 嗚呼. 粵. 于. 吁. 欬. 叱

감탄에 쓰이는 어조사

哉(-하구나). 乎. 矣. 也. 歟. 夫. 邪. 也哉. 也夫. 矣夫. 哉乎. 矣乎. 兮. 與. 來

의태, 의성어

儻然. 勃焉. 俄然. 喟然. 洋洋. 唯唯. 幽幽. 自若. 藉藉. 將將. 從容. 蹉然. 浩然. 忽然

의태어, 의성어 뒤에 붙는 한자

然. 焉. 爾. 如. 若. 爲. 乎

발어사, 어기사

夫. 伊. 蓋. 唯(=惟. 維). 諸. 案. 於. 思. 載. 式. 抑. 粵. 越. 其. 也. 焉. 矣. 則. 以

‘대저, 보통’의 의미를 갖는 한자

凡(무릇)。夫。蓋(대개)。盖。大抵。且。概(대개)。略(대강)

한정(限定)

已(-뿐, -할 뿐이다)。耳。而。爾。而已。耳矣。已矣。而已矣。
也已。也已矣。~則~耳

‘-이다’로 해석되는 한자

也(-이다)。是。是個。乃

단어 앞에 쓰이는 어조사

於(-에, -에서, -로)。于·乎(=於)。自(-에서)。從(-에서)。道(-에서)。由(-부터)。猶。繇

부정(否定)에 쓰이는 한자

不(아니, 못, -하지 않다, 없다, 아니다)。弗(=不)。否(아니다, -하지 않은지)。不是(아니다)。負(-하지 않다)。未(아니다, 아직 -하지 않다)。末。非(아니다)。微(=非)。匪(=非)。無(없다, -하지 마라)。亡(=無)。罔。沒。毋。靡(없다)。莫(없다, 아무도 ~ 없다)。勿(말다)。
無不。莫不。毋不。無~不。莫~不。無非。莫非。非非。非不。
非無。非~不。未~不。不~不。不~弗。鮮不~

받는 말(代詞)

此(이(이것, 이사람, 이일), 그)。之(이, 그(그것, 그사람, 그일))。是(이, 그)。寔。時。其(그, 그
것)。諸(그것(=之), 그것에(=之乎, 之於))。厥(그, 그것)。焉(이, 그)。斯(이, 그)。爾(이, 그(=其), 그
렇게)。伊(저, 그)。彼(저(저것, 저사람), 그)。以(그것으로써, 그래 갖고)。夫(그, 이)

인칭대명사(1, 2인칭)

我(나, 우리)。吾(나)。余(나)。予。僕(저)。朕(나)。不穀。汝(너)。女。子(너, 당신)。爾(너)。
而(너)。若(너)。吾子(그대)。乃(너)。君(그대)。之(너)。我等(우리)。吾等。汝曹(너희)。二三子

관형사 ‘그’의 의미를 갖는 한자

其(그)。該。之。爾。厥。居。豈

수식(修飾)

之(-의, -하는)。其(-의)。所((-이) -하는)。所 ~ 之。之所 ~。的(-의)

문장(구절) 사이를 연결하거나 전환하는 한자

乃(이에, 이리하여)。爰(이에)。斯(이에)。迺。於是(=于是, 於是乎)。曾(이에)。因(인하여, 이에)。因而。從而。仍。故(그리하여)

역접(逆接)

雖(비록 (-하더라도))。唯。繞(비록)。縱(비록)。使。且。
然而(그러하나)。然。雖然(비록 그럴더라도)

의문(疑問), 반어(反語)

何(어찌(왜, 어떻게),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 무슨, 어느, 누구, 어디, 얼마)。奈(어찌)。如(어찌)。豈(어찌)。胡。安。曷。害。惡。烏。庸。寧。獨。那。遽。詎。巨。渠。底。誰(누구)。孰(누구, 어느, 무엇)。幾(얼마)。
何以(어찌, 무엇으로)。奚以。何爲(어찌)。曷爲。奚爲。胡爲。何用。何由。奚由。何道。惡乎。甚麼(무엇, 무슨)。何等。如何(어찌, 어찌하다)。如 ~ 何。何如。若何。若 ~ 何。若之何。奈何(奈何)。奈 ~ 何。奚如。奚若。何謂(무엇을 말하는가)。奚謂(=何謂)。孰與(어느 쪽인가, 어느 쪽이 더 -한가)。何故(무슨 까닭)。何居。幾何(얼마)。幾許

주로 반어에 쓰이는 한자나 어구

盍(어찌 -하지 않으리(=何不 ~))。闔。豈(어찌)。安。害。之有(-함이 있으랴)。豈徒(어찌 -할 뿐인가(=豈獨, 何但))。何有。況 ~ 乎

의문, 반어에 쓰이는 어조사

乎(-하냐, -하리오)。哉。也。邪。與(-하냐, -한지)。者與。歟。耶。矣。乎哉

가정(假定), 조건(條件)

若(만약 -하면)。若 ~ 則。如(=若)。雖。假(가령)。使(가사)。設(설령)。爲(가령)。假令(가령)。假使。如使。若使。若令。藉。今(지금(만약))。苟(진실로)。審。信。
則(-하면 곧)。卽(=則)。便(곧, 문득)。輒(문득)。必(-하면 반드시)。者(-하는 자는)。乃(-하니, -해야)。斯(-하면 (이는))。此(=斯)。是(=斯)

동등, 동격

則(곧, 즉)。卽(=則)。乃(곧)

가능, 능숙

可(가히 -할 수 있다. -하기에 가능하다)。能(능히 -할 수 있다. 능하다)。得(-할 수 있다)。可得(而)。得而。足(족히 -할 수 있다)。有餘。知(-할 줄 알다)。克(능히 -하다)。會(능하다)。善(잘)。好

당위(當爲), 의무, 타당

當(마땅히 -해야 한다)。宜(=當)。可(가히 -해야 한다. -할 만하다)。合(합당히)。應(응당)。須(모름지기. 마땅히)。如(=當)。必

의지, 예정

欲(-하려고 하다)。將(장차 -하려고 하다)。將欲(=將)。當(=將. -해야 할 판이다)。不肯(-하려고 하지 않다)。定(-하기로 정해지다)。

원인, 이유(理由), 목적, 연유

故(고로. 때문이다)。顧。~之故(~ 때문)。是故。是以。以(때문에. 때문이다)。所以(까닭)。所以~者。所以~故。以~故(때문이다)。爲(위해서. 때문이다)。爲~故。由(-에서. -에 말미암다)。繇。也(때문이다)。緣(-에 연유하여)。因(-에 인하여)。隨。於(=于. 乎) -에(에서)。自(-에서)。從

추측, 짐작, 생각

蓋(아마)。恐(-할 것 같다. -할까봐 (두렵다))。必(반드시 -일 것이다)。當。應。殆(거의 -듯하다)。殆於。庶幾(거의 -할 것이다)。幾(거의. 하마터면)。危(하마터면 -할 뻔하다)。近(-에 가깝다)。疑(-한 것으로 의심된다)。疑是。欲(-할 것 같다)。如(-한 것 같다)。似。若。抑。意((-라고) 생각하다)。意者(=意)。以爲(-라고 생각하다(=謂, 爲))

인용(引用)

曰(-라고 가로다(말하다))。曰~云。聞之~曰。云(-라고 이르다)。作(-라고 나오다)

정도(程度)

可(대략 -쯤)。許(쯤)。可 ~ 許。所(쯤)。略

경험

嘗(일찍이 (-한 적이 있다))。曾(일찍이)。未嘗不。未曾

시간, 상황 당면(當面)

當(-당하여(맞이하여))。時(-할 때에)。當 ~ 時。於 ~ 也(-함에도)。至(-에 이르러)。及。比(-할 즈음에)。遲。臨。迫。值。居 ~ (~ 있으니, 지나니)。處

기타

·常(늘)。當。恒(항상)。每(매양)。秩(항상)。或(늘)

·素(평소에)。平(평소)。居(평소)

·元(원래)。原。本(본디)。既(원래)。固(본디)。初(처음)。始(처음)

·頻(자주)。數(자주)。屢(자주)。亟(자주)。繁(자주)。屢(자주)

·時(때때로)。或(간혹)。希(드물게)。稀。往往

·代(번갈아)。更(번갈아)。遞(번갈아)。迭(번갈아)

·古(옛)。古者。古之。故(옛)。昔(예전, 아까)。昔者。往(옛)。

往者。往古

·乃(접대(저번에, 아까, 예전에))。乃者。曩(접대, 이전에)。曩者。疇(접대)。疇昔。向者(접대)。鄉。鄉者。嚮。日者。初(이전에)。始。先是(이에 앞서)。前此

·既(이미)。已(이미)。既已。預(미리)

·今(이제)。乃今。方(바야흐로)。方今。酣(한창)。半。中(도중)

·近者(요즘)。近來。比來。今者。屬者。頃(요사이)

·將(장차. 이제 곧 막). 且(장차). 當(장차). 方將

·幾(거의 (-하려 한다)). 庶幾(거의). 垂(거의). 汔(거의)

·居無幾何(얼마 있지 않아. 얼마 후에). 無幾何. 無何. 未久(머지않아). 未幾. 未央. 已而(이윽고). 既而. 既已

·暫(잠시). 須臾(잠깐). 姑. 斯須. 臾. 乍(잠깐). 間(잠시). 爲間. 少(잠시). 少選. 選間. 頃(잠시). 居頃. 有間(조금 있다가). 良久

·久(오래). 久之(=久而). 永(길이). 長(길게). 良久(매우 오래)

·遂(드디어. 마침내. 결국). 終(끝내). 竟(마침내). 究竟. 卒(끝내). 果(과연)

·會(때마침. 우연히). 偶(우연히(=遇)). 適(마침). 屬(때마침)

·卒(갑자기). 卒然. 猝. 忽(갑자기(=忽然)). 俄(갑자기). 遽(갑자기). 旋(갑자기). 尋(갑자기). 雜(갑자기). 奇. 乍. 勃. 暴. 急. 突. 頓

·早(일찍). 夙(일찍). 蚤(일찍)

·卽(즉시). 則. 便(곧). 立(바로). 直(곧). 徑(곧). 速(빨리)

·必(반드시. 틀림없이). 果. 期. 須(반드시). 審(틀림없이). 信(틀림없이). 定(반드시)

·苟(진실로). 誠(진실로). 眞(진실로). 固(진실로). 良(진실로). 實(참으로). 情. 故. 審(참으로). 信(진실로). 正. 果(과연)

·猶(오히려). 尙(오히려). 尙猶. 將. 反(도리어). 倒(거꾸로). 還(도리어). 覆(도리어). 顧(도리어). 却(도리어). 卻. 竟. 寧(차라리)

·妄(마구. 멋대로). 任(마음대로). 恣(마음대로). 肆(멋대로). 擅(멋대로). 專. 橫. 放. 從. 縱. 亂

·敢(감히). 竊(외람되이). 果(과감히). 忍(차마). 固(굳이). 苟(구차히)

·皆(모두). 舉(모두). 舉皆(모두). 相(서로). 全(모두). 諸(모든). 盡(다). 咸(다). 悉(다). 合(모두). 歷(다). 餘(되다). 勝(다). 都(모두). 通(모두). 備(모두). 總(모두). 一. 摠. 該. 凡. 齊.

僉

·周(두루)。遍(두루)。徧。彌(두루)。普(널리)

·獨(홀로)。單(혼자)。特(홀로)

·至(아주。지극히)。甚(심히)。已。極(극히)。泰(심히)。大(크게)。殺(매우)。苦。孔。絕(더 없이)。斬(매우)。很(매우)。亦(대단히)

·最(가장)。上(최상)。元(으뜸)。冠(으뜸)。冠絕。莫～。

·熟(자세히)。孰。具(자세히)。詳(자세히)。致(자세히)。察。密

·差(조금)。少(조금)。頗(조금)。一(조금)。毫釐(아주 조금)。秋毫

·僅(거우)。覯。厘。纔(거우)。才。不過

·唯(오직。다만)。惟(=唯)。維。但(다만)。只(단지)。祇。特(단지)。獨。徒(단지)。直。專(오로지)。純(오로지)。精。畛(뿐)

·漸(점점(=漸漸))。浸。稍稍(차차)。次(차차(=次次))

·益(더욱 -할수록)。愈(더욱)。兪。彌(더욱)。茲(더욱)。滋

·尤(특히。더욱)。特(특히)。獨(유독)。況(더욱)

·且(또)。又(또。다시)。有(또(-하고))。復(다시)。復。再(거듭)。重(다시)。更(다시)。革(다시)。還(또)

·與(-와)。之與。及(및。와)。暨(및)。越

·與(함께。더불어)。俱(함께)。共。同(같이)。偕(함께)。兼(함께)。竝(아울러)。并。併。相(서로)。相與。胥

·微(몰래)。密(비밀히)。隱(몰래)。陰(몰래。속으로)。竊(몰래)。私(몰래)。潛(몰래)。間(몰래)

·外(겉으로)。陽(겉으로)。名(명분으로)

·身(몸소)。躬(몸소)。手(손수)。親(친히)。自(스스로)

·僞(거짓으로)。佯(-한 체하다)。詳。故(일부로)

·誤(잘못)。謬(잘못)。失。佚